



한전 부지 매입에 10조 사용 — 사측은 지불 여력이 충분하다

#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하고 통상임금 확대하라

현대·기아차 사측이 '올해 임단협에서 통상임금을 분리하자'는 황당한 제시안을 던졌다. 임금체계·근무체계 문제와 연동해 내년 3월에 방안을 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임단투의 핵심 의제를 피해하려는 야비한 꼼수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사측은 임단협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시간을 질질 끌어 통상임금 확대 열망을 식히고자 한다. 게다가 임금피크제·이중임금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악까지 밀어붙이려 한다.

지금 우리를 더한층 분노케 하는 것은 사측이 한전 부지 매입에 무려 10조 5천 5백억 원을 쏟아 부으며 돈 잔치를 벌였다는 점이다. 본사 이전 비용까지 합치면 20조 원이 넘는다. 사측은 지불여력이 충분하면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20조 원이면 현대·기아차 그룹의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체불임금을 포함해 통상임금을 확대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도 사측은 즉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통상임금 문제에서도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조합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몽구의 돈 잔치는 사회적으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 단호하게 투쟁하면 요구를 쟁취할 수 있다.

통상임금 확대 적용, 체불임금 쟁취를 위해

부분 파업에 머물지 말고 단호하게 투쟁해야 한다

추석 연휴를 전후해 현대차 이경훈 집행부는 사측과 타협을 추구했다. 9월 2일 교섭에서 지부장은 '통상임금은 내년 3월 말 합의하자'는 사측의 안을 즉각 거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의원들과 활동가들이 교섭장 앞 시위를 벌였고 결국 교섭이 중단됐다.

이후 부지 매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현대·기아차 지부는 지난주부터 부분 파업을 재개했다.

그럼에도 이경훈 집행부의 모호한 태도는 여전히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집행부는 이번 임협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분명히 제기하지 않고 있다. 지부 소식지는 "즉흥적인 합의보다는 보완하고 또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지금 쟁의권이 있을 때, 조합원들과 그룹사 노조들의 투쟁 동력이 살아 있을 때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 이 힘으로 반드시 이번 임협에서 적용범위(정기상여금 산입), 적용방법(총액임금 억제 반대, 임금·근무체계 개악 반대), 적용시점(지난해 대법원 판결 직후) 등 구체적 요구를 쟁취해야 한다. 현대차에서 잘못된 합의를 하면, 이는 계열사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대·기아차 집행부가 체불임금 문



제를 사실상 소송으로만 대처하려는 것도 우려된다. 현대차의 경우, 정기상여금의 고정성 여부를 두고 법적 논란이 있어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기아차도 '신의칙'을 남발하는 법원에만 기대서는 요구를 따내기 어려울 수 있다.

한전 부지 매입으로 사측의 지불여력이 재확인된 만큼, 통상임금 확대, 체불임금 쟁취, 임금·근무체계 개악 반대,

기본급 인상 등 애초 대의원대회 요구를 후퇴시키지 말아야 한다.

한편, 유감스럽게도 이경훈 집행부는 '노노 분열' 운운하며 9월 2일 교섭장 앞 항의를 비난하고 관료적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 집행부는 교섭장 안의 논의 내용을 밖으로 공개하지 말고, 시위와 확성기 사용 등을 자제하라고 말했다. 심지어 교섭 중에는 교섭위원들의 휴대폰까지 수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노노 분열'이 아니라 노동조합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다. 조합원들은 마땅히 잠정합의 전에 교섭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당연히 집행부가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이를 비판하고 항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경훈 집행부는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제약하지 말고, 현장조합원들의 통상임금 확대 열망을 받아안아 투쟁에 매진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를 쟁취하려면 지금처럼 찌꺼기 찌꺼기 부분 파업을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더 단호하게 투쟁을 전진시켜야 한다.

현장의 좌파 활동가들은 기층 조합원들의 분노를 조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아차

## 법적으로 유리한 조건 이용해 투쟁을 이끌어야

기아차지부 화성지회는 지난 24일 올해 첫 파업 집회를 열었다. 거의 한 달여만의 파업 재개와 첫 집회는 현장조합원들의 관심을 불러모았다. 안 그래도 한전 부지 매입 문제로 분노한 조합원들은 '집

행부는 왜 투쟁을 조직하지 않는가, '전면 파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던 차였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집회 연단에서 김종석 지부장은 '정기상여금 적용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현대차가 마무리된다고 기아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하고 말했다.

지부 집행부는 약속한 대로 이경훈 집행부를 추수하지 말고, 강력하게 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현대·기아차 그룹사 중 11개

사업장이 정기상여금에 고정성이 있고, 단연 기아차가 그 핵심에 있다. 기아차지부가 이런 유리한 조건을 이용해 파업 강도를 높여 그룹사 전체의 통상임금 투쟁을 이끄는 구실을 해야 한다.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재판 승소

# 당장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 전환하라

지난 18~19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천1백79명이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데 이어, 25일에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4백68명이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4년 만에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1명을 제외(고용기간에 대한 입증 부족을 이유로)한 원고 모두에게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파견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더구나 재판부는 그간 법적 논란이 됐던 공정들까지 모두 파견 금지 업무로 규정했다. 1차 하청뿐 아니라, 2차 하청 노동자들에게도 처음으로 '묵시적인 근로자 파견 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기아차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이 더는 혼재 생산을 하지 않아 불법파견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일각의 인식을 깨는 계기도 됐다. 법원은 원청의 작업 지시, 연속적인 자동차 생산 공정의 특성, 사내하청의 업무가 정규직의 업무와 밀접히 연결돼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이번 재판 승리의 주역은 단연 비정규직 노동자들 자신이다. 지난 10년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와 투쟁은 완전히 옳



았다. 8월 18일 현대차 사측과 정규직 지부, 전주·아산 비정규직지회가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신규채용에 합의한 이후에도, 이를 거부하고 싸워 온 노동자들이 옳았다. 기아차에서도 지난해 광주 사내하청분회 조합원들이 신규채용에 맞서 투쟁을 벌였다.

현대차 사측은 이 같은 판결이 날 것을 우려해 그토록 악랄하고 집요하게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며, 신규채용 합의와 소송 취하를 압박했던 것이다. 8.18 합의 이

후 사측은 기아차에서도 같은 내용의 신규채용안 수용을 요구했다.

지금 사측은 법원 선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항소를 제기했다. 울산지검은 24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간부·조합원 54명에게 총 69년 10월의 징역과 벌금을 구형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의 선고 결과에 고무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맞았다!" 하며 조직과 투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시금 불법파견 정규

직 전환 요구의 정당성이 확인된 만큼, 신규채용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 있음을 제시하며 투쟁해 나가야 한다.

마땅히 현대·기아차 지부도 이런 요구와 투쟁을 지지하고 함께해야 한다. 사측이 "합의 정신" 운운하며 불법파견과 신규채용을 지속할 의사를 밝히는 지금, 이경훈 집행부는 8.18 합의 폐기를 선언하고, 소송 취하서 접수를 중단하고 이번 신규채용자들에 대한 전환배치도 거부해야 한다.

## 현대중공업노조, 13년 만에 파업 결의

현대중공업 노조가 9월 17일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쟁의를 결의했다.

사측은 지난 수년간 임금을 짊짊 올려 주거나 동결하며 노동자들을 쥐어짰다. 그러는 동안 노동자들의 분노와 울분도 커져 왔다.

지난해 노동자들은 사측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12년 만에 민주파 후보를 당선시켰다.

특히 올해 들어 노동자들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6월 12일과 7월 24일 노조가 개최한 집회들에 수천 명이 모였다. 노동자들은 정병모 위원장이 연단에 오르자, 이름을 연호하며 민주노조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한 중년 노동자는

1987년 투쟁의 기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잘못된 임금 정책을 바꾸자"는 구호가 터져나왔다.

인상적이게도 이 집회들에는 사내하청 지회도 참가했다. 아직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함께했다. 정규직 노조의 투쟁은 4만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기대를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측은 경영 위기를 강조하며, 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등 노조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회사는 그동안 우리에게 빼먹을 거다 빼먹었어요. 임단협 때마다 '적자네', '불경기네' 했지만, 다들 올해는 그냥 넘

어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노동자들의 분노는 9월 17일 대의원대회에도 반영됐다. 사측에 친화적인 대의원들이 다수였지만, 아무도 감히 투쟁에 반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노조가 9월 23일부터 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하자, 사측은 온갖 협박과 방해를 일삼았다. 평소 보이지 않던 고위 관리자들까지 현장에 내려와 감시와 통제를 대폭 강화했다.

노조는 사측의 방해가 중단될 때까지 무기한 교섭을 거부하고 찬반투표도 연장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부 보수 언론은 이를 비난하며 '투표율이 낮고 파업에 대한 지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비아냥댔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그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3일 투표 첫날 노동자 3천여 명이 모여 집회를 하고 사측을 규탄했다. 이튿날 한 부서에서 젊은 노동자들은 우루루 투표장에 몰려갔다. 이 소식이 번지자 다른 부서에서도 노동자들은 잇따라 투표장으로 달려갔다. 노조는 이번주에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노조는 사내하청지회, 울산대병원, 울산대병원 민들레분회, 현대호텔 등 계열사 노조들과 공동 투쟁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본격적인 투쟁 준비에 나선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에게 관심과 지지를 보내자.



노동자 정치 신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 연대** 를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http://wspaper.org>

**<노동자 연대>를 함께 읽고 토론합시다!**

<노동자 연대>는 곳곳의 주요 노동자 투쟁 소식과 운동의 전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동자 연대>를 읽고 토론할 동지들을 기다립니다. 연락주시시오.

문의 : 김우용 (기아차 010-3092-9003)  
정동석 (현대차 010-8363-5695)